

2025 청소년 캠프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라는 창을 발견해가는
청소년의 신앙 여정

감리회본부 교육국



“ 믿음의 필요해

믿음이라는 창을 발견해가는
청소년의 신앙 여정

주제 해설

02

공과 개요 & 활용 가이드라인

05

1과 의심의 방

06

2과 비교의 방

10

3과 관계의 방

16

고민의 방

22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_ 히브리서 11:1

우리는 모두 삶의 여정을 걸으며 마치 창문 없는 방에 갇힌 듯한 답답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장 폴 사르트르(Jean-Paul Sartre)의 ‘출구 없는 방’처럼, 사회가 설정한 기준과 구조 속에서 방향을 잃고 헤매기도 합니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이러한 폐쇄된 공간에서 바깥세상을 궁금해하며, 때로는 벽을 두드리고 부수고 싶어지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불안과 의심, 관계의 문제, 경쟁 속에서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에 놓여 있습니다.

믿음은 이러한 닫힌 공간 속에서 창을 발견하는 힘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을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미래를 현재로 끌어오고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실재적 힘으로 정의합니다. 우리는 종종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은 그것을 실제로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새로운 시각을 열어 삶을 새롭게 조망할 수 있도록 하는 창과도 같습니다.

청소년들은 성장 과정에서 세상의 모순과 충돌하며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나는 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나는 진정 가치 있는 존재인가?” 이러한 고민은 때때로 무겁게 다가와 사방이 막힌 벽 안에 갇힌 듯한 기분이 들게 합

그러나 믿음은 바로 그 순간, 창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자신이 갇혀 있다고 여겼던 공간에서 바깥세상을 내다볼 수 있는 창이 있음을 깨닫고, 그 창을 통해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믿음으로 창을 발견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형과의 갈등, 불확실한 미래, 경쟁 속에서 자신을 잃어가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새로운 길을 찾아갔습니다. 특히, 하나님과 씨름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했던 순간은 삶의 벽을 마주한 청소년들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믿음은 단순한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과 태도를 의미합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 해결된 후에야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창이 있음을 신뢰하고, 그 창을 찾아 나서는 과정 자체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분명한 미래를 약속하셨지만, 그는 즉시 그 미래를 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며 자신의 창을 발견해갔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야 하지만, 믿음은 그 길 끝에 있는 미래를 현재 속에서도 경험하게 하는 힘입니다.

이 공과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에서 믿음이라는 창을 발견하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삶의 벽이 앞을 막고 있을지라도, 믿음은 그 벽을 뚫고 창을 내는 힘이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탈출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통로입니다. 믿음이라는 창을 통해 새로운 길을 발견하고, 창조적인 시각으로 자신의 삶을 설계하는 경험을 하길 바랍니다.

또 왜 그러는데 뭐가 못마땅한데
할 말 있으면 터놓고 말해봐
너 많이 변했어 (내가 뭘 어쨌는데)
침엔 안 그랬는데 (침에 어땀었는데)
요새는 내가 하는 말투랑 디엠과 릴스 보는 것까지
다 별로인가 봐 (그건 니 생각이야)

우리 함께 교회간지도 어느덧 10개월
매주 듣는 설교 다 잘 모르겠어
나도 너처럼 믿음 좋다는 말 듣고 싶었어
(믿는 건 쉬운 일이 아냐 우리 같이 해보자)
근데 그놈의 믿음 원지 내 뜻대로 안 돼
안 보이니까 몸이 따르질 않아
너는 어떻게 그렇게 믿어 진짜 넘 신기해
(지금부터 내 말을 들어봐)
난 매일 불안해 (나도 사실 불안해)
나는 너무너무 답답해 (나도 정말정말 답답해)
달린 방이라고 해도 우릴 향한 하나님의 약속
저 창 밖에 보여

내가 너무 힘들고 지쳐 마음이 아파서
제발 도와줘요 기도했는데
무심한듯한 그분 목소리 들리지도 않아
(하나님 계시긴 한 건지 나도 잘 몰랐어)
근데 너는 어떻게 그리 잘 버티고 있어
대체 믿는다는 게 어떤 느낌이야
꼭 막힌 오늘 안 보이는 내일 잘 살고 싶어
(듣고 보니 나도 정말 그랬어)
믿음이 필요해 (우리 갇힌 벽을 두드려)
내가 믿음 너무 몰랐어 (새로운 창을 발견하자)
항상 거기 있었는데 나의 무관심과 불안 의심 때문에
다 잊고 살았어
믿음이 필요해 우린 믿음이 부족해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 말씀 따라 정말 오늘은
다시 믿어볼게 (너를 너무 사랑해)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공과 개요 & 활용 가이드라인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종종 닫힌 방에 갇힌 듯한 답답함을 경험합니다. 이 공과는 삶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방들을 탐색하며,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창이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과정입니다.

과	핵심 주제	주요 질문
1과 의심의 방	믿음은 의심 속에서도 시작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실까? 믿음은 불확실함 속에서 어떻게 작동할까?
2과 비교의 방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나를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3과 관계의 방	깨어진 관계 속에서 믿음이 답이 될 수 있을까?	관계에서 오는 상처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용서와 화해는 어떤 의미일까?

① Opening 마음 열기

- 각 과의 주제에 대해 개인적인 경험을 떠올려보기
- 그룹에서 자유롭게 나눌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기
- “이 주제는 내 삶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질문 던지기

② Meeting 성경 속으로 들어가기

- 야곱의 고민과 내 고민의 닮은 점 찾기
- 하나님이 각 상황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살펴보기
-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교훈 찾기

③ Following 적용 및 실천하기

- 배운 내용을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방법 고민하기
- “이번 주에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는 무엇인가?” 질문하기
- 기도로 마무리하며, 믿음이 내 삶에서 창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기

④ Acting 활동하기

- 각 과의 주제와 관련된 활동을 통해서 생각을 표현하고 확장하기

[한 걸음 더 나아가기]

Q. 나는 지금 어떤 방에 갇혀 있는가?

Q. 하나님은 나를 그 방에서 어떻게 이끌어 내려하실까?

Q. 이 공과를 통해 내 삶의 관점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제, 1과 "의심의 방"으로 들어가 보시다.
믿음의 창을 발견할 준비가 되었나요?**

의심의 방

#야곱과의심 #의심의두려움
#의심의창문

창세기 28장 10-22절 (새번역)

10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11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워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12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13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준 하나님ियो,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준 하나님이 다. 네가 지금 누워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14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 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15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 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 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16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17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18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9 그 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20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 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21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22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추천 찬양: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믿음과 삶〉, 〈시편 139편〉

Opening, 삶의 이야기 : 의심의 질문들은 어두운 방과 같다

살다 보면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는 걸까?’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를 혼란스럽고 불안하게 만들죠. ‘혹시 내가 믿음이 없어서 드는 생각은 아닐까?’ 신앙을 가진 우리는 이를 믿음의 부족이나 불신으로 여겨 불안해하거나 숨기려는 경향이 클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거나 확신이 없어서 마음이 흔들리는 상태’를 ‘의심’이라고 해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 있다면, 우리의 마음 상태는 빛이 없는 어두운 방과 같을 거예요. 오랫동안 걸어오던 믿음의 여정이 멈춰버린 것 같은 이 상황, 이곳에 영영 갇혀버릴 것만 같은 두려움이 가득할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만날 야곱은 좋은 샘플이 되어줄 거예요. 야곱은 ‘왜’라는 질문으로 가득한 시간 속에서, 나의 하나님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Meeting, 성경 이야기 : 야곱, 하나님을 발견하다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 이삭을 속인 뒤 형의 분노를 피해 도망치던 중이었어요. 그렇게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까지 가는 여정이 시작되었죠. 이는 자그마치 800km에 달하는 긴 거리였어요. 야곱은 길 중간의 외딴곳에서 해가 저 더 이상 이동하지 못하고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어요. 고독한 밤, 광야에서 홀로 잠들어야 했던 그는 깊은 불안 속에 있었죠.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상태였거든요. 집을 떠나야 했고, 가족도 곁에 없었으며, 미래는 불확실했어요. 아마도 야곱은 이런 질문을 했을 거예요. ‘내가 정말 잘한 걸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실까?’ 그의 마음은 두려움과 의심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창 28:10-11). 그런데 바로 그 두려움과 의심의 순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야곱이 돌을 베개 삼아 잠들었을 때, 꿈속에서 그는 하늘로 연결된 사다리를 보았어요. 그 사다리를 통해 천사들이 오르내리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시고 야곱과 함께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창 28:13-15). 그때 야곱은 생각했어요.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창 28:16)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은 야곱이 두려움과 의심 속에서 새로운 소망을 품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야곱은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어요(창 28:17-22).

Following, 실천의 이야기 : 그리스도인, 의심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다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갖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의심’이 우리의 믿음을 멈추게 하는 어두운 방같이 느껴지지만, 사실 ‘왜’라는 질문을 통해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죠. 의심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또 하나의 믿음의 창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세요. 시편 139편은 우리가 하나님께 ‘왜’라고 물어도 되는 그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시 139:1-18).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움직임, 생각, 질문, 심지어 우리의 숨겨진 동기까지도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두려움과 의심을 숨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질문을 갖고 있는 시간까지도 사 용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답답하게 만드는 질문으로도, 내 삶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해야 해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듯 우리의 고통과 위기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의미있는 시간이 된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의심과 질문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심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 깊게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어 주세요. 믿음은 의심이 없는 완전한 상태가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란, 의심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용기를 말해요. 의심의 창문을 통해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말해요. 이제 여러분의 질문과 의심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터놓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세요.

연관 질문

① Keep

오늘 말씀 중에서 기억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요?

② Problem

나에게도 야곱과 같이 ‘왜’라는 질문이 가득했던 순간이 있었나요?
말씀에 비추어보았을 때, 나는 이 질문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 같나요?

③ Try

2번의 변화를 위해서 지금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돌베개 만들기

목 표	야곱이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체험해 보고, 자신의 의심과 두려움을 표현하도록 돕는다.
준비물	부드러운 작은 돌(또는 손바닥 크기의 종이 모형), 색연필, 사인펜 등 꾸미기 도구
방 법	· 사전 준비 - 차분한 분위기를 위해 적절한 배경음악을 준비한다. · 진행 - 참가자들에게 돌(종이 모형)을 나누어 준다. - 자신이 지금 하나님과 관련해서 '왜?'라고 묻고 싶은 질문을 돌에 적거나 그림으로 표현하게 한다. 예) 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실까? 왜 세상에 고통이 있을까? - 다 한 사람은 돌베개를 베고 누워있도록 한다. - 질문을 적은 돌을 개인적으로 간직하거나 나중에 그룹에서 나눌 수 있도록 격려한다. - 담당 선생님(혹은 교역자)에게 제출한다.
마무리	야곱이 의심으로 가득했던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났고 믿음의 길을 다시 걸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적은 질문도 하나님께 솔직하고 용감하게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시작이 됨을 믿고 고백하는 마무리 기도를 한다.

2과

비교의 방

#끝없는비교 #열등감 #좌절 #인생의성공
#가장중요한것 #사랑의조건

창세기 28장 15절 (새번역)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 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 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추천 찬양: 〈소원〉, 〈삶의 작은 일에도〉

Opening, 삶의 이야기 : 늘 비교하는 삶은 출구 없는 방과 같다

영수의 하루

아무래도 책을 새로 사야 할 것 같다. 반장이 푸는 문제집이 더 좋아 보인다. 그런데 같은 책으로 바꾸려 하니 좀 그렇다. 친구 얼굴이 오늘따라 뽀샤시하다. 얼굴에 무슨 짓을 한 게 분명하다. 나도 뭔가 해야 할 것만 같다. 엄마가 마트에서 티셔츠를 사 왔다. 또 무슨 할인을 했을 거다. 괜찮아 보이긴 해. 그런데 친구들이 아무 말도 안 한다. 불안하다. 오늘 처음 입고 나왔는데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다. 집에 가는 길이 이렇게 길었던가? 집에 왔는데 동생이 기타를 친다. 듣기 싫다. 솔직히 잘 쳐서 짜증 난다. 동생은 음악에 재능이 있다. 난 엄마랑 한 달 넘게 신경전을 벌인 끝에 피아노 학원을 관뒀다. 피아노가 딱히 싫진 않았지만 나보다 몇 달이나 늦게 시작한 친구에게 뒤처지는 건 죽어도 싫었다. 난 왜 특별한 재능이 없을까? 뭔가 불안하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우리의 하루는 영수의 하루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늘 비교하며 살아가지요. 기쁨, 우쭐함, 패배감, 불안, 좌절, 부러움, 분노, 편애, 무시 등 비교는 많은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 가운데 어떤 감정이나 행동은 우리 삶을 망가뜨리기도 해요. 필요하지 않은 비교는 우리의 신앙과 평안을 위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교를 멈출 수 없어요. 사람의 욕망과 비교는 그치지 않고 우리는 어쩌면 비교라는 방, 출구가 없는 방에 갇힌 것처럼 속절없이 비교하고 비교당하며 살아갑니다.

Meeting, 성경 이야기 : 우리와 다르지 않은 야곱

야곱도 다르지 않았어요. 그는 둘째로 태어난 자신의 처지를 형 에서와 늘 비교했어요. 야곱은 사냥으로 지치고 배고픈 형 에서에게서 팔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권한을 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염소 가족으로 털이 많은 형처럼 자신을 꾸미고, 형의 옷을 입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아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단단히 화가 난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쳐온 야곱은 그곳에서 일하면서도 자신의 노동과 품삯을 비교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내가 된 라반의 딸들을 공평하게 사랑하지 못했어요. 야곱은 평생 영수의 하루를 벗어나지 못했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서의 인물도 멈추지 못했던 비교와 욕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Following, 실천의 이야기 ①

: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씨름합시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에게로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야곱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요. 고향을 떠나오는 광야길 벧엘에서 꿈을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찌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창 28:15)” 야곱은 이 말씀을 떠올리고 형에게서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창 32:9-12).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에서가 무서워서 모두가 건너간 압복 나루터를 건너지 못하고 홀로 남았어요. 생존이라는 당연한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는 순간이었지요. 야곱은 말씀과 욕망 중에 어떤 것을 따를지 고민하며 비교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야곱은 그곳에서 어떤 사람과 씨름을 했어요. 씨름하는 중에 허벅지 관절을 다쳤지만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노라며 야곱은 밤새도록 매달렸지요. 그 사람은 야곱을 축복했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도 주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에요. 야곱에게 용기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이 느껴지는 이름입니다.

우리도 용기를 냅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욕망이 부딪힐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시다. 각자의 압복 나루터에서 고민에 빠졌을 때 그 고민을 쉽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씨름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합시다. 사랑을 선택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실천의 이야기 ②

: 사랑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시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신 것은 야곱이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우리에게 사랑할만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지금의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말이 나를 설명하는 그 어떤 말보다 중요한 말이고, 나를 가장 잘 설명하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일이에요. 참된 사랑은 조건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무엇이 되라고, 무엇을 해내라고, 조건을 갖추라고 비교하며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이룬 사람이예요. 지금은 끝없는 비교 속에 지친 우리의 영혼이 크디큰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쉬을 얻을 때입니다. 더 이상 비교하며 주눅들 것도 우쭐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을 누릴 수 있어요. 비교와 경쟁 속에서 아등바등 노력하여 누리는 게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좋을 수 없지요. 하나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일이라는 것을 굳게 믿어야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약속하신 것을 받는 삶이 내 노력으로 누리는 삶보다 더 행복하고 가치 있다고 믿음으로써 비교, 평가, 정죄, 차별하는 반복에서 벗어납시다. 비교를 그칠 수는 없지만, 우리 삶을 비교의 결과로 가득 채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삶은 기적처럼 사랑하고 사랑받는 일이 됩니다.

연관 질문

① Keep

오늘 말씀 중에서 기억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요?

② Problem

욕망과 말씀이 충돌하는 자리, 나의 압박 나루는 어떤 욕망과 어떤 말씀이 충돌하는 자리인가요?

③ Try

많은 사람들이 더 가지고 더 높아지기 위해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만물의 주인이며 무엇보다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이 '성공한 삶'일까요?

비교와 이별하기 ①

목 표	자신이 어떤 비교를 하며 살아가는지 돌아본다. 친구들이 어떤 비교와 고민을 하는지 깨닫고 비교를 멈춘다.
준비물	폼보드나 우드락 판, 포스트잇, 펜, 작은 통
방 법	· 사전 준비 - 차분한 분위기를 위해 적절한 배경음악을 준비한다. · 진행 - 동그랗게 둘러앉는다. (적정 인원 5-10명) - 가운데에는 우드락이나 폼보드를 놓는다. - 잔잔한 음악 속에서 자신이 비교하거나 비교당했던 것들을 떠올리도록 안내한다. (성적이나 외모처럼 보편적 고민과 비교 외에도 다양한 상황과 관계를 떠올릴 수 있도록 진행자가 인도한다.) 그 비교가 얼마나 자신을 피곤하고 힘들게 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한다. - 자신이 가장 많이 비교했던 것 한두 가지와 비교당했던 것 한두 가지를 포스트잇에 적는다. 붙였을 때 글이 보이지 않도록, 끈적끈적한 부분 아래에 적도록 안내한다. - 모두 나와서 보드에 붙인다. (누구의 것인지 모를 정도로 랜덤으로 붙인다.) 다시 동그랗게 앉는다. - 한 사람씩 나와서 포스트잇을 하나 떼어 적혀있는 내용을 읽는다. 읽기를 마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십니다.'라고 말하며 포스트잇을 두 번 찢어서 통에 버리고 들어간다. - 보드 준비가 여의치 않으면 벽에 붙이고 반원의 형태로 진행해도 무방하다. - 시간 여유가 있다면 마치고 전에 느낌이나 깨달음을 나누어도 좋다.
마무리	모든 포스트잇을 다 읽으면 공과의 본문 말씀을 함께 읽고 기도로 마친다.

비교와 이별하기 ②

목 표	자신이 어떤 비교를 하며 살아가는지 돌아본다. 친구들이 어떤 비교와 고민을 하는지 깨닫고 비교를 멈춘다.
준비물	종이 카드(1인X4장)
방 법	· 사전준비 - 차분한분위기를 위해 적절한 배경음악을 준비한다. · 진행 - 자유롭게 앉는다. (적정 인원 10-30명) - 종이 카드를 한 학생당 네 장씩 나눠준다. - 잔잔한 음악 속에서 자신이 비교하거나 비교당했던 것들을 떠올리도록 안내한다. (성적이나 외모처럼 보편적 고민과 비교 외에도 다양한 상황과 관계를 떠올릴 수 있도록 진행자가 인도한다.) 그 비교가 얼마나 자신을 피곤하고 힘들게 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한다. - 자신이 가장 많이 비교했던 것 두 가지와 비교당했던 것 두 가지를 종이 카드에 적는다. - 카드를 모두 모아서 섞고 다시 네 장씩 나눠 준다. - 진행자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을 부르다가 멈추면 가고 싶은 방향으로 돌아다니던 학생들이 그 자리에서 멈춘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 짝지어 마주 보고 상대방의 카드 가운데 하나를 뽑아서 읽는다. 카드 교환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십니다.'라고 말하며 악수한다. - 진행자가 다시 찬양을 시작하여 학생들이 돌아다니도록 한다. 만났던 사람과 다시 만나지 않고 최대한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시간 여유가 있다면 마치고 전에 느낌이나 깨달음을 나누어도 좋다.
마무리	학생들이 충분히 만났다고 판단될 때 공과의 본문 말씀을 읽고 기도로 마친다.

3과

관계의 방

#야곱과에서의갈등 #관계의단절
#어두운방 #믿음의창문

히브리서 11장 1절 (새번역)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추천 찬양: 〈주는 평화〉, 〈빛으로 오신 예수님〉

Opening, 삶의 이야기 : 관계의 단절은 어두운 방과 같다

우리는 가족, 친구 등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관계 가운데 발생하는 갈등을 피할 수 없죠. 깊은 갈등에 빠진 우리의 마음 상태는 빛이 없는 어두운 방과도 같아요. 우리는 때때로 외로움과 불안함으로 가득한 그 방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문제가 없는 것처럼 지내기도 해요. 그러나 어둠은 우리에게 영향을 주어 나아갈 길을 찾지 못하게 방해하죠.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인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그분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행동하는 데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관계의 어두운 방에 온화한 빛을 밝히는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도록 합시다.

Meeting, 성경 이야기 : 야곱, 믿음의 창문을 발견하다

형 에서를 속여(창 25:29-34)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가로챈(창 27:1-29) 야곱은 집을 떠나 멀리 도망가야만 했어요. 분노에 휩싸인 에서의 공격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그 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오랫동안 단절되었고 야곱으로 하여금 오랜 시간 어두운 방을 경험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곁을 가까이 지키지도 못했을뿐더러, 형을 떠올릴 때마다 두려움과 미안함이 밀려왔을테죠. 관계 갈등으로 인해 여러분이 겪었던 아픔을 떠올려 본다면 야곱의 마음을 공감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형으로부터 도망친 지 20년 후,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이때 야곱은 관계 회복을 위한 믿음의 창문을 발견하고 사과하기로 결심했지요. 사과를 내비칠 심부름꾼을 먼저 보내기도 하고, 각종 선물도 준비했어요. 물론 하나님께 두려움을 맡기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역시 빼놓지 않았어요. 야곱은 진정한 사과를 위해 노력했어요. 자신을 “주인의 종 야곱(창 32:4)”이라 칭하며 에서에게 겸손한 자세를 취했어요. 그리고 사과의 행위를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여러 번 시도했어요. 야곱은 관계를 단절시킨 자신의 잘못을 어떠한 변명도 없이 인정하고 관계 회복에 진심을 다했어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형이 여전히 자신을 미워하고 복수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걱정이 밀려왔을 거예요. 형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보복에 대한 두려움, 혹은 사

과를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걱정은 피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형과 화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믿음의 창문을 발견한 야곱은 보이지 않던 관계 회복을 실재적으로 이뤄낼 준비가 되었어요. 주님께 기도하며 얻은 용기와 은혜를 믿고 끝까지 사과하기로 결심하여 행동했어요.

야곱과 에서의 화해 장면을 재현한 연극 대본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생생히 느껴봅시다.

야곱 :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에서를 보고 불안한 떨림 속에 가까이 다가간다.

땅에 엎드려 절하며 말한다.)

아이고...! 죽을 죄를 지은 당신의 종 야곱입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당신 앞에 나아갈 면목이 없는 죄인입니다.

(일곱 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하며, 반복하여 사과한다.)

에서 : (야곱의 이야기가 끝나자 야곱에게로 달려가 끌어안는다.)

야곱... 야곱아... 네가 바로 내 동생 야곱이로구나!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서, 입을 맞추고 눈물을 흘린다.)

야곱&에서 : (둘은 함께 화해의 눈물을 흘린다.)

에서 : 내가 오는 길에 만난 가족 떼는 모두 웬 것이냐?

야곱 : 형님께 사과하는 마음과 용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준비한 선물입니다.

형님께서 저를 이렇게 너그럽게 맞아 주시니, 형님의 얼굴을 뵈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듯합니다. 이 선물을 기꺼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에서 : (에서가 거절하였으나 야곱이 간곡히 권하므로, 에서는 그 선물을 받는다.)

쓏츠(릴스)가 필요해!

1. 위의 역할극을 기발하고 재미있게 릴스나 쓏츠로 만들어서 별스타그램이나 너튜브에 게시합니다.
2. @[계정아이디]를 태그, "#2025믿음이필요해" 해시태그를 달아주세요
3. 참가팀 중 3팀을 뽑아 푸짐한 선물(배달의**, 다** 상품권)을 드립니다.

Following, 실천의 이야기 : 그리스도인, 믿음의 창문을 발견해야 한다

야곱과 에서의 화해 장면에서 그들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나요? 앞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야곱의 진실된 사과(변명 없는 사과, 겸손한 사과, 반복하는 사과)는 형 에서의 마음에 닿았어요. 단절된 관계로 인해 암흑에 휩싸였던 방은, 믿음의 창문 사이로 비친 하나님의 빛을 통해 변화되었어요. 야곱이 형을 속여 받았던 축복은 마음 한 편을 어둡게 만든 반쪽자리 축복이었어요. 그러나 진정한 사과를 통해 용서받는 과정에서 그의 마음속 그늘은 사라지고 비로소 온전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형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듯하다’는 표현에 잘 나타나 있죠. 야곱의 믿음은 어렵게만 보이던 관계 회복의 결실을 얻게 해주었어요. 형 에서와 화해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과 사과를 통해 화해시키실 하나님의 능력을 야곱은 확신했어요.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여 평안과 화목이라는 믿음의 선물을 얻었습니다.

혹시 소중한 누군가와 겪고 있는 갈등으로 인해 마음의 문을 잠그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러하다면 어두운 방에서 믿음의 창문을 발견하고 상대방에게 사과하길 바라요.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도와주실 테니까요. 형 에서와 화해함으로써 온전한 축복을 누렸던 야곱처럼, 믿음을 통해 관계가 회복된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거예요.

연관 질문

① Keep

오늘 말씀 중에서 "믿음"에 대해 가장 기억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② Problem

말씀에 나의 모습을 비춰보았을 때, 나는 어떤 부분을 바뀌나가야 할까요?

③ Try

2번의 변화를 위해서 지금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사과 편지 쓰기

목 표	사과 편지를 쓰는 활동을 통해, 믿음으로 결단한 사과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다.
준비물	펜, 꾸밀 수 있는 재료(색연필, 스티커 등), 편지지와 봉투, 활동지
방 법	· 사전준비 – 차분한 분위기를 위해 적절한 배경음악을 준비한다. · 진행 – 사과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구하는 기도로 시작한다. – 활동지에 적힌 내용을 따라 사과할 내용을 정리한다. – 활동지를 바탕으로 사과 편지를 쓴다. – 사과 편지를 자신만의 스타일로 꾸민다. – 편지 봉투에 수신인 주소와 이름을 적는다. – 믿음으로 결단한 사과의 마음이 상대방에게 닿도록 기도로 마무리한다. – 담당 선생님(혹은 교역자)에게 제출한다. *Tip: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나 시간은 모두가 동일하지 않기에 화해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
마무리	하나님은 우리가 화목하기를 원하시며, 갈등의 어두운 방에 사과의 창문을 달기로 결단한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내용으로 마무리 기도를 한다.

- ① 사과하고 싶은 상대방이 누구인가요?
- ② 언제, 어디서 갈등이 발생했나요?
- ③ 무슨 말 혹은 어떤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었나요?
- ④ 내가 잘못했을 때 상대방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 ⑤ 진심을 담아 미안하다는 표현을 적어보세요.
- ⑥ 잘못된 행동을 바른 행동으로 바꿔 적고,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적어보세요.

고민의 방

이번 캠프를 통해 무엇을 배웠나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느꼈죠? 그럼 이번엔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삶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말씀으로 방향을 찾아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다음은 친구들이 익명으로 보낸 고민과 그에 대한 답변들입니다. 이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거나 이 내용을 바탕으로 고민을 나누어 보길 바랍니다. 고민을 나눈 후에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것도 꼭 잊지 마세요!

1.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함께하실까?

고민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하시는지 모르겠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나를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어.

답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순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지, 사랑하시는지 의심이 되는 순간 일 거야. 특히 기도했는데 당장 이뤄지지 않을 때, 속상한 마음이 차오르기도 하지. 어쩌면 이런 마음은 자연스러운 거야. 실제로 찬양의 노래들이 기록된 시편에는 기쁨의 찬양만 있는 것은 아니야. 오히려 놀랍게도 많은 것들이 한탄, 눈물의 노래들이야. ‘하나님, 나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라고 외치는 거지.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사람은 대놓고 ‘하나님, 뭐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보고만 계실 거예요?’라고 소리치기도 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하박국을 비롯한 한탄의 기도를 드린 사람들의 기도를 막지 않으셨어. 오히려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 기도에도 응답해 주셨어. 하박국에게도 ‘내가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있어.’라고 말씀해 주셨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느낄 때도, 느끼지 못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야. 똑같은 태양 아래 있어도, 구름에 따라서 때로는 그 햇빛이 따사로울 때도 있고, 때로는 서늘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늘 생생하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 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한 선한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보이십니다. 곧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롬 5:8, 새한글)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선에서만, 요구하는 선에서만 일하셨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일은 절대 없었을 거야.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방식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예상과 다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

그럼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솔직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를 나무라는 분이 아니셔. 오히려 하박국처럼, 한탄의 노래를 불렀던 시편의 작사가들처럼, 우리의 슬픔과 어려움도,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원망까지도 솔직하게 말하기를 바라고 계셔. 마치 사랑하는 자식의 우는 소리를 듣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보듬어 안아주는 부모의 마음처럼 말이지.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어. 깊이 아는 친구일수록 서로 오해를 덜하게 되고, 서로의 눈빛만 보아도 알게 되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미처 알지 못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면, 어느새 그 질문들의 답이 풀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당장 느껴지지 않더라도 기다려 보는 거야. 미처 내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너에게 깨닫게 해 주실 거야. 왜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해 주신 분이거든!

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날마다, 세상이 끝날 때까지! (마 28:20, 새한글)

2. 더 이상 눈치보고 싶지 않아!

고민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나도 모르게 친구들 눈치를 많이 보고 있어. 나의 진짜 모습을 숨기고 있기도 해.

답변

친구들의 눈치를 보는 것도 힘들고, 내 모습이 흐려지는 것 같다고 느끼면 마음이 무거워지지.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가짜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서 찢리는 마음이 있었다면 정말 힘들었을 거야. 사실 많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상황에 맞게 자기 자신의 가면을 쓴다고 해. 우리가 이 사회에서 어느 정도 각자의 역할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서로의 건강한 관계를 도와주지만, 지나치게 나 자신을 포기한다면 ‘나를 잃은 듯한’ 불안한 마음과 무기력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 때문이기도 해.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음 깊은 곳에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 칭찬받고 싶은 마음,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고 싶은 마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마음이야.

이렇다 보니,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아. 내 마음과 전혀 다른 말과 행동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내 양심이나 신앙의 가치관과 너무나 동떨어진 선택을 하고 후회하기도 해. ‘내가 왜 그랬을까.’ 생각하며 자책하기도 하지. 성경은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잊지 않기를 당부하고 있어. 바로 ‘우리 각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평가하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매우 좋게’ 보고 계셔.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모든 것을 보셨다. 아 매우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여섯 째 날이었다.
(창 1:31, 새한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요 3:16, 새한글)

어떤 상황에서도, 어느 사람을 만나더라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라. 하나님은 우리가 가면을 쓰지 않아도, 있는 모습 그대로 충분히 아름답고, 좋고, 사랑스럽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지.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 그래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죽지 않고 내 모습을 간직할 수 있거든.

예수님은 자신이 사람들 가운데 있어도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휘둘리지 않으셨어. 왜냐하면 그 일이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고 응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지. 덕분에 예수님은 자신이 해내야 할 삶의 목적을 다 이루어내신 거야.

그런 예수님이 외롭기만 했던 것은 아냐. 많은 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해하지 못했지만, 한편에는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을 알아보았던 제자들도 있었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 제자들은 예수님의 진심과 그분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기로 했지. 이처럼 우리도 내가 나답게 살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모습대로 살아가다 보면, 때론 더디더라도 언젠가는 그 모습을 알아주고 인정해 주며 함께 걸어갈 이들이 생겨날 거야. 그렇게 함께하게 된 친구들은 그 어떤 화려하고 그럴듯한 가면보다 더 든든히 우리 곁을 지켜주는 친구가 되어 줄 거야.

혹시 내 모습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외롭게 느껴진다면, 그 외로운 길을 먼저 걸어가셨던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절대 변하지 않는 친구가 되어 주실 거야!

우리의 대제사장님(예수님)은 우리의 약한 것들을 공감할 수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하고 똑같이 유혹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거리낌 없이 은혜의 임금자리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때에 맞는 도움을 얻도록 합시다.

(히 4:15-16, 새한글)

3. 인*타를 괜히 열었어!

고민

인*타에 나타난 사람들의 모습은 모두 화려하고 행복하게만 보여. 이에 비해서 나는 외모부터 성격 그리고 가정 형편까지 초라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아.

답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셔. 바로 하나님이 너를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야. 성경에 보면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어. 야베스는 고통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었어. 그 이름은 히브리어로 ‘고통’이라는 뜻이야. 그의 어머니가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어(대상 4:9). 고대 사회에서 고통스럽게 태어났다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 정서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었을 거야. 충분히 배려받지 못했겠지. 그런데 야베스는 자신을 남과 비교하지 않았어. 대신 하나님께 기도했어.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외쳤다. “정말로 제게 복을 주시려면, 저의 지역을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이 저와 함께하여 재앙이 저를 고통스럽게 하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가 요청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대상 4:10, 새한글)

야베스의 인생이 정말 완벽한 인생이 되었다는 뜻은 아닐 거야. 하지만 야베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삶’에 대한 ‘믿음’이 생겼을 거야. 불편함과 부족함이 야베스를 넘어뜨리지 못했을 거야.

상대적인 평가로 남과 나를 비교하다 보면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뛰어난 누군가로 인해 괴로워져. 하지만 나의 믿음이 건강하다면,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만약 내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을 SNS가 방해한다면, 잠시 쉬어가는 것도 용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건강한 믿음의 발걸음이 되길 응원할게!

4.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남들 따라가고 있는 느낌이야. 근데 이러다가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지?

답변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최대 고민은 늘 진로와 공부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 진로와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벌고 생계를 유지하는 것 이상으로 의미있는 일이기도 하거든. 거기에서 우리는 행복을 느끼고, 삶의 의미를 찾게 되니까.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잘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재밌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해. 어떤 친구들은 ‘돈을 많이 버는 일’, ‘유명해지는 일’, ‘남들이 동경할 만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하지.

그런데 성경은 그런 고민들보다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이야. 이 질문은 사도 바울이 했던 질문이기도 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삶의 중요한 방향을 찾게 되었어.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고전 10:31, 새한글)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고, 마시고, 일했던 사람이었어. 그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삶을 큰 목적으로 세웠어. 대신 이 큰 목적을 위한 세부 목적은 자신의 재능과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생각하기도 했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로 활동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를 세우는 목회자로, 어떤 때는 학생들을 모아서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 활동하기도 했어. 선교 자금을 모으기 위해 옷감이나 가족을 다듬어 천막을 만드는 일도 했지. 어떤 일은 바울이 잘하는 일이었고, 어떤 일은 즐겁게 하는 일이었겠지. 잘하지도, 즐겁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한 일도 있었어. 바울에게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으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저마다의 재능과 소질을 주셨다는 거야.

은혜의 선물은 여러 가지이지만,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님이십니다.(고전 12:4, 새한글)

내가 너를 엄마 뱃속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네가 아기집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했다.

너를 여러 민족의 예언자로 삼았다. (렘 1:5, 새한글)

한 번에 나의 진로를 찾기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기준을 갖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 있다’는 확신을 갖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건 어떨까? 기도하며 도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을 거야!

5. 연애를 빨리 하고 싶어!

고민

친구들은 다 연애하는데 난 아직 솔로... 나만 뒤처지는 기분이야. 어떻게 하면 빨리 연애를 시작할 수 있을까?

답변

진정한 사랑을 얻고 싶어하는 마음은 중요한 마음이라고 생각해! 성경에서도 서로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는 상대방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창 2:18).

친구들 사이에서도 왠지 연애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더 멋져 보이기도 하니, 조바심이 나는 것도 사실이지. 하지만 그런 조급한 마음이 지나치게 되면 연애 자체가 목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렇지만 빠른 것보다 바른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두 사람의 사랑을 통해 서로를 성장시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돕는 관계야. 특히 청소년기의 연애는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너무 그 관계에 몰입하게 되면 자칫 나 자신을 잃을 수도 있어. 너무도 소중한 '사랑'이, 내게 너무 아픈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 지금은 조바심을 조금 내려놓고 나를 가꾸는 시간이 되게 하는 것은 어떨까? 나 스스로가 하나님이 주신 내 모습을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그때에 나도 남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 거야. 또 그렇게 건강한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보석처럼 빛나기 때문에, 그 모습을 함께 발견해 주고 소중하게 대해줄 누군가를 꼭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언젠가 연애를 시작하더라도 이건 꼭 기억하면 좋겠어. 그것은 예수님이 당부한 모습대로 사랑하는 거! 예수님은 사람을 대하는 기본 자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므로 남들이 여러분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여러분 자신들도 그대로 남들에게 해주세요.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핵심이니깐요. (마 7:12, 새한글)

6. 왜 자꾸 싸우게 되는 거지?

고민

요즘따라 부모님과 부딪히는 일이 많아지는 것 같아. 내 인생인데 부모님이 다 결정하려고 할 때마다 너무 화가 나. 존중받고 싶어!

답변

청소년 시기는 자율성을 키우는 시기라고 해. 부모님이 선택해 주고 결정해 주는 아동기 때와는 달리, 내가 직접 결정하고 싶어지니까. 이제까지는 가족이 인간 관계의 전부나 다름없던 시기에서 친구를 비롯해 주변 사회가 확대되는 시기이니 만큼, 더 많이 배우고 싶고 경험하고 싶어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야. 이렇게 자율성을 바탕으로 행동하다 보면 함께 따라오는 좋은 능력이 생기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효능감’이야. 비록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성인이 되기 전에 스스로 판단해 보고 부딪혀보는 경험이 쌓이면, 자기 효능감이라는 믿음이 생긴다고 해.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어려운 일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일을 도전하는 것도 수월해지거든. 그런 의미에서 자율성을 건강하게 키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런데 성경은 자녀들과 부모가 서로 존중해야 함을 중요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께 주님 안에서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올바른 일이니깐요.
(엡 6:1, 새한글)

아버지(부모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들을 주님의 방식으로 훈계도 하고 타이르기도 하면서 잘 키우십시오. (엡 6:4, 새한글)

이처럼 성경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방식으로’의 원칙을 꼭 지키길 말씀하고 있어. 주님의 방식은 어떤 방식일까? 주님의 방식은 사랑의 방식이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선택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자는 거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내 것을 얻어내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상대를 위해 내 것을 내어주는 모습이니깐.

또 ‘주님의 방식’은 사랑하기 위해 내 것을 ‘내려놓는’ 모습을 이야기하기도 해.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놓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려놓고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처럼 ‘내려놓는’ 모습이 바로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거지.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의 사랑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한편, 정작 나는 어떤 것도 내려놓으려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 가장 사랑해야 할 가족끼리도 사랑은 커녕 감정싸움만 하는 경우도 있지. 하지만 이것은 주님의 방식과는 멀어지는 길이야. 우리는 주님의 방식을 기억하며 서로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 같아.

만약 나도 모르게 주님의 방식보다는 감정과 내 고집이 앞서고 있다면,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사과를 하거나 도움을 구할 용기도 필요해. 나 스스로 새롭게 배워가는 요즈음이 너무 좋아서, 나도 모르게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미안하다.’고 말아야.

반대로 우리 가족이 나를 주님의 방식대로 존중해 주지 않는다고 느끼거나, 때로는 가족들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상처 받는다고 느낀다면, 한 번 진지하게 이야기해 보아도 좋을 것 같아. ‘아직 부족함이 많지만, 새롭게 시작을 준비하는 나의 모습을 응원해 주고 기도해달라.’고 말아야.

소중한 너의 청소년 시기를,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멋지게 가꾸어 나가는 시간들이 되길 응원해!

믿음이라는 창을 발견해가는
청소년의 신앙 여정

믿음이 필요해

발행인 김정석

편집인 김두범

기획 조성환 이상숙

집필 김국진 김애진 서예은 이반석 이진주 황보현

감수 황현숙

발행처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교육국

03186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149 감리회관 16층

전화 02-399-4371, 4367

디자인 및 제작 이야기|books



믿음이 필요해

감리회본부 교육국